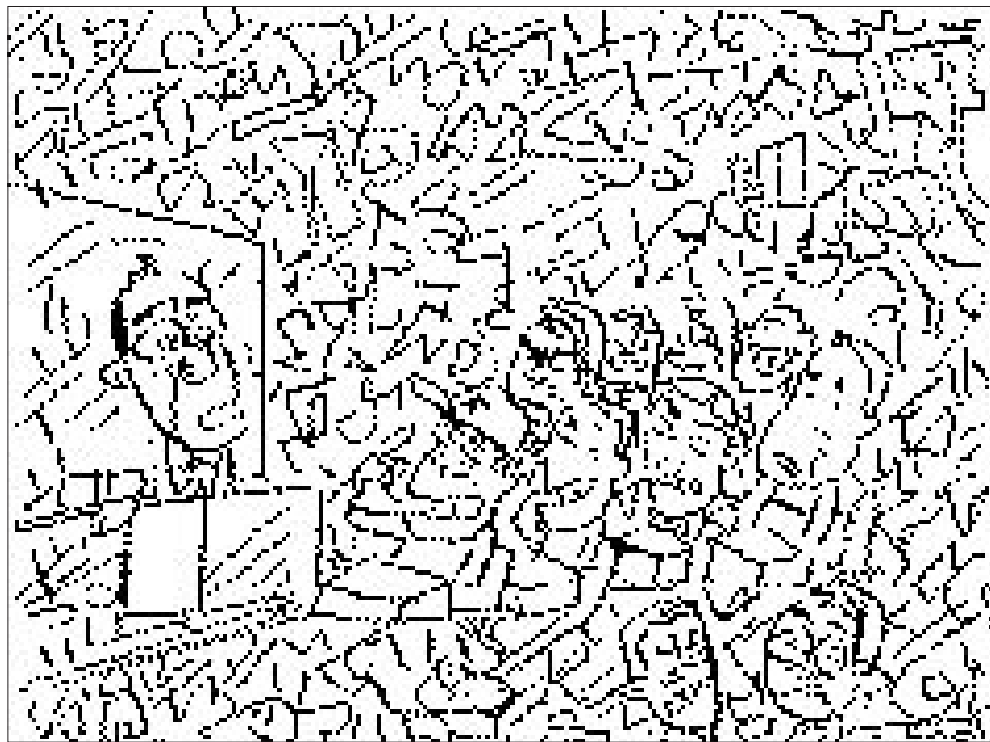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38>



찾아보세요 셔플록, 펜촉, 바늘, 다리미, A자 슬리퍼, 당근, 갈매기, 부엌칼

모자를 쓴 이유

한 대학생이 수업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언짢았던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다. "자네는 수업 시간에 왜 모자를 쓰고 있냐?" 그러자 그 학생 말 "그림 교수님은 왜 안경을 쓰셨어요?" "그야 눈이 나빠서지." 학생이 다시 말했다. "전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썼습니다."



지난주 정답 펜촉, 볼링핀, 음표, 사과, 종, 팬이, 슬리퍼, 성냥개비, A자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조강곤 <여수시 여서동> 임월섭 <광주시 동구 계림 1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중국은 1949년 정부 수립 후 친미국가를 적성국으로 간주하는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북한과 밀접한 외교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에서 맞선 중국과 한국은 높은 감정의 벽을 사이에 두고 30년을 넘게 단절 상태로 지냈다.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의 화해 모드가 이뤄지면서 중국은 잇달아 일본, 미국 등과 국교를 수립하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한국 역시 중국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1983년 중국 민항기가 한국에 불시착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중국 민항기가 대만 땅을 요충하는 무장괴한들에 납치당하면서 춘천 미국 캠프에 불시착했다. 이 사건을 통해 양국 정부관계자들이 접촉하면서 한·중간 최초의 공식대면이 이루어졌고, 한국의 우호적인 대처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를 계기로 1984년 중국 내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 친지 방문이 시작됐고,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중국 선수단이 참가했다. 1990년 북경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선수단 교류가 이뤄지는 등 양국의 외교 관계가 급물살을 탔다.

체육·관광·친척 방문 등 비정치적 영역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됐지만 냉전의 국제환경과 양국의 북한과 대민의 관계 때문에 한중 수교는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국은 정부 수립 이래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한국은 대만과의 국교를 맺고 있어 '하나의 중국'을 고집하는 중국의 입장과 배치됐다. 그러나 두 나라 국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양국은 1990년에 들어 영사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했다.

그리고 1992년 8월 24일 한국은 대만과의 외교 단교를 통보하고 베이징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 친지친 중국외교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두 나라 외교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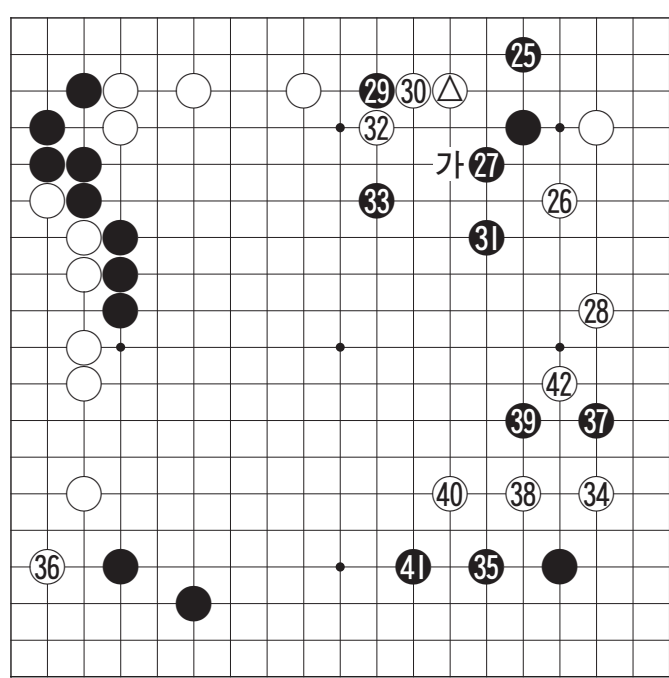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된 이후 한국과 중국은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주요 수출대상국과 투자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만과의 민간 차원의 인적교류도 늘어 2004년에는 단교 때문에 단절되었던 항공 노선이 복원되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상옥 당시 외무부 장관과 친지친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한중 수교 조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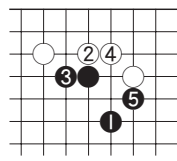


제17회 광일승 광주·전남 지역 바둑대회

적절한 임기응변

개인전 준결승 1국 3보(25~42) 백 박광주 5단, 흑 이상의 5단 (광주시청)

백 △로 협공해왔을 때 가 초반 포석의 기로였다. 이상의 5단은 상식대로 흑 25로 두었으나 지금은 상변의 백이 단단하므로 다음의 진행에서 보는 것처럼 흑이 쫓기게 돼 소통치 않았다.



<참고도>

25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두는 것도 생각할 볼 수 있었다. 백은 2로 넘는 정도인데 흑 3으로 늘고 5로 막으면 충분하다.

백이 26, 28로 우변을 지키자 흑 29

로 쳐들어 갔는데 백 30으로 쳐받은 수가 임기응변으로 좋은 수가 되었다. 이때 흑이 32에 느는 것은 백이 '가'로 붙여 나와 낭패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흑 31로 물러서고 말았는데 백 32로 흑 한점이 잡히고 보니 흑의 실책이 한눈에 드러난다.

흑 33까지는 백이 양쪽을 다 둔 형태라 초반의 공방에서는 백이 득점을 올리고 있다.

백 36을 외면하고 흑 37로 쳐들어 간 것은 손실을 의식한 강수며 백 42까지 주도권을 잡기위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김형우 천원전 8강 진출

김형우 3단이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3기 박카스배 천원전 본선토너먼트 16강전에서 유창혁 9단을 맞아 191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지난 5월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에서 8강에 오르면서 상승세를 탄 김형우는 최근 두 달 사이에 이창호 9단, 안조영 9단, 이영구 7단 등을 꺾었다. 올해 전적은 28승11패.

김형우는 최근 열린 2008한국바둑리그 본선 8라운드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안조영 9단과 준결승전 진출을 다투게 됐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각 1시간에 40초 초읽기 3회이다. 상급은 우승 2천만원 준우승 1천만원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리빙 센스

매콤한 콘 볶음



콘 통조림 1/2통, 다진 마늘 1/2스푼, 청·홍고추 1/2개씩, 양파 작은 것 1/2개, 고춧가루 1스푼, 간장, 기름

- 1. 캔에 든 옥수수는 체에 밭쳐 물기를 빼주고, 청·홍고추와 양파는 굵게 다진다.
2. 캔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굵게 다진 양파를 넣어 볶는다.
3. 양파가 익으면 옥수수와 고추를 함께 넣고 볶는다.
4. 옥수수가 익으면 간장과 고춧가루를 각각 한 스푼씩 넣어서 재빨리 볶아낸다.
5. 입맛에 따라 피자 치즈를 위에 뿌린 후 데워내면 간단한 술안주로도 제격이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8월 20일(음 7월 20일 壬戌)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굿모닝 잉글리쉬 <1128>

When is John coming over?

언제 존이 올까?

A: When is John coming over?
B: He's not. His mom said he can't do anything this weekend
A: It's time John stood up for himself. He's 23 for crying out loud.
B: I'm with you.

A: 언제 존이 올거지?
B: 그는 올 수 없어. 그 사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 이번 주말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A: 존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할 때가 됐는데. 큰소리로 당당하게 말할 23살인데.
B: 그래 나도 동의이야.

cry out loud: 큰소리로 말하다
be with: ~와 (의견을) 함께하다
for oneself: 혼자 힘으로
그 사람은 말을 굵게 할 때도 됐는데.
= It's time he said something nic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28>

あしたでちょうど半年(はんとし)です.

내일로 정확히 반년입니다.

A: 金さんは日本に(き)てから、だいふ長(なが)いですね.
B: ええ、あしたでちょうど半年(はんとし)です.
A: いかですか、もうこちらの生活(せいかつ)に慣(な)れましたか.
B: いいえ、まだ十分(じゅうぶん)に慣(な)れていません.

A: 김 씨는 일본에 온지 꽤 오래되었죠.
B: 예, 내일로 정확히 반년입니다.
A: 어떨습니까? 이제 이쪽 생활에 익숙해졌습니까?
B: 아니요, 아직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十分(じゅうぶん)에: 충분히
半年(はんとし): 반년
慣(な)れる: 익숙해지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205>

你几点上班?

몇 시에 출근해?

A: 姜老师! 你几点上班?
jiāng àoshī! Nǐ jǐ diǎn shàngbān?
姜老师! 너几点上班?

B: 7 点上班.
qī diǎn shàngbān.
七点上班.

A: 你妻子呢?
Nǐ qīzi ne?
네 친정 아내?

B: 她 8 点上班.
Tā hā diǎn shàngbān.
她八点上班.

A: 김 선생님! 몇 시에 출근하셔요?
B: 7시때 출근해요.
A: 부인분은요?
B: 8시때.

上班 [shàngbān] 출근하다
妻子 [qīzi] 아내, 처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 383-1605

한자 이야기 <845>

洛陽紙貴 (낙양지귀)

물 이름 락, 별양, 종이 지, 귀할 귀

낙양지귀(洛陽紙貴)는 낙양의 종이 값이 올랐다는 뜻으로, 곧 저서가 호평을 받아 베스트셀러가 됨을 비유하는 말이다. 육조의 진(晉: 265~316)나라 시대, 제(齊)나라의 도읍 임치(臨淄) 출신의 좌사(左思)라는 시인이 있었다.

그는 추남에다 말까지 더듬었지만 일단 붓을 들면 장엄하고 미려한 시를 막힘없이 써내려갔다.

그는 임치에서 '제도부(齊都賦)'를 1년 만에 탈고하고, 도읍 낙양(洛陽)으로 이사하였다. 그는 낙양에서 삼국시대 촉(蜀)의 도읍 성도(成都), 오(吳)의 도읍 건업(建業), 위(魏)의 도읍 업의 풍물을 읊은 '삼도부(三都賦)'를 10년 만에 완성했다.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의 유명한 시인 장화(張華)가 '삼도부'를 읽어 보고 격찬하길, "이것은 반고(班固) 장형(張衡)의 부류(流)이다." 라고 하자, '삼도부'는 당장 낙양의 화제작이 되었다.

고관대작은 물론 귀족·관관·문인·부호들이 그것을 다투어 베껴 써서 읽는 바람에 '낙양의 종이 값이 올랐다[洛陽紙貴]'고 한다. (晉書, 文苑傳)

<한여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